

PRESSBOOK

LEE Bae

Living Sense

November 2017



ART

마크 테토의 물물기행 12탄  
현대미술가 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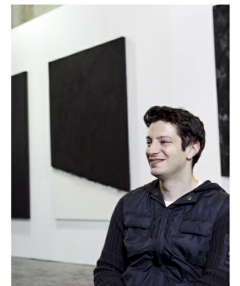
매달 미국인 마크 테토가 도예, 공예, 회화, 가구 등 한국 작가의 공방을 찾아가는 이야기를 소개한다. 지난달의 현대미술가 잔영영에 이어 이번 달에는 '술의 화가로 불리는 전 세계적인 현대미술가 이배를 만났다.

기타 이영환 기자 사진 촬영

소중한 우리의 것을 알고 지켜가기 위한 길라잡이 '마크 테토' 한국에 살며 한국의 고가구를 모으고 우리의 전통 악기인 거문고를 배우기까지 한국의 문화에 푹 빠져 있다. 더불어 한국의 작가와 작품을 보다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 매달 (주방센스)에서 '마크 테토의 물물기행'이라는 칼럼의 스펙터클을 활약하고 있다. 이들에 관한 작가는 미국과 프랑스에서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 이배. 1956년 경북 청도에 서 태어나 물에 82세인 작가 이배는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이 주는 '말해의 작가상'을 수상했고, 2014년 프랑스의 페르네 프랑카 재단에서 한국 작가로는 이우환에 이어 두 번째로 개인전을 열었다. 2015년에는 유럽 최대의 동양 미술관인 파리 국립 기메 동양 박물관에서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개인전을 열었다. 그리고 내년에는 유럽에서 손꼽히는 현대미술관으로 사할, 조르주 브라크 등 20세기 유럽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는 '마크 재단 미술관'에서 아주 큰 개인전을 앞두고 있다. 1년의 절반을 파리에서 거주하는 작가 이배가 마침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가진 파리 페르낭 갤러리(Galerie Perrotin) 외의 전시 작업을 위해 고향 청도에 있는 작업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마크 테토가 한밤중에 달려갔다.

마크 테토(MARK TETTO)

JFKC 이영성재단의 운영 자문의 이력을 가진 마크 테토, 한국에 신지 유채희, 에스킴 한옥의 매에이 록 해지 복촌 한옥 마을에 살고 있다. 한국 특유의 미학과 기품을 품은 작품을 좋아한다. 그리고 매달 한국 작가의 작업실을 찾아가서 나는 대화록 (주방센스) 투자의 공유했다.





**M** 인생하세요. 작가님 오래전부터 작가님을 만나고 싶었어요. 마침 한국에 들어오셨다고 해서 부러워하게 달려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 가 방은 크잖아요(웃음). 그래서 제가 작업실이 좀 많아요. 파리, 칭도, 대구, 서울, 뉴욕에 작업실이 있어요. 반의 반 이상은 파리에 있고요. 마침 한국에 들어왔을 때 마이크 테트 씨를 만날 수 있어서 기분이 좋습니다.

**M** 대단하세요. 노마드. 그러니까 유목민의 삶을 살고 계시네요(웃음). 이곳 현대에서 태어나고 자라셨네요? 1956년 칭도에서 태어났어요. 산과 들 강이 지천이었죠. 문명을 벗어나 온전한 자연 속에서 흠을 받으며 성장했어요. 전기를 처음 접한 게 제 1차 아들 생 때였어요. 피아노는 학기를 본 건 얼마 전 생 때였죠. 중학교 때 그림을 그렸다고 하니 시골 아리산들 생각에는 귀신이 들렸다고 생각했는지 무당술 불러다 주셨어요(웃음).

**M** 한국 영화에서 못하는 장면은 본 적이 있어요. 어떤 나이에 너무 무서우셨겠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테지마리를 앞에 두고 무당이 굿을 했는데요. 그때 미술 선생님이 저희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미술을 공부해서 대학교를 나오면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겨우 승낙을 받을 수 있었어요. 당시 아리산들은 가늠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공부밖에 없었어요. 그 덕분에 대구로 미술 유학을 갔고 서울 종로대학교 석사학위에 입학했어요. 그 당시 등록금이 20만원에 초반이었어요. 부모님께서 과수원을 하셨는데 사과를 가득 실은 담구지 8리분을 팔아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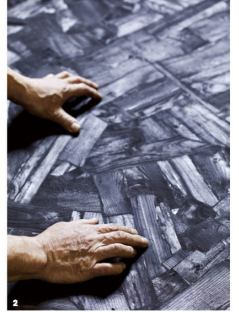
을 마련해주셨죠. 그래서 부모님께 보답하려고 같은 대학의 대학원을 졸업하자마자 선생님이 되었어요. 서울 종로구 혜화동에 있는 경신중학교였어요.

**M** 왜 중학교 미술 선생님이로 재직하다 어떤 계기가 있어서 파리로 떠났나요? 작품 활동을 하고 싶었어요. 1989년에 파리로 갔어요. 제가 떠날 때 다시 한국에 돌아오지 않으려고,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팔았어요. 워낙도 있으면 혹시 아련을 태워줄까 봐서요. 그리고는 가서 진짜 굉장히 어렵게 생활했어요. 불어를 쓸 줄 모르니 말도 안 통했고 극심한 생활고도 겪었어요. 무엇보다 작가로서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보냈어요.

**M** 한국에서의 안정적인 직업을 정리하고 그토록 하고픈 작품 활동을 위해 파리로 가지셨는데 언어나 돈 문제 말고 어떤 점이 작가님을 힘들게 했나요? 없는 살림을 차려 써서 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독일의 현대미술관을 1년간 돌아다녔어요. 이 거대한 유럽 미술관에서 문화적 토양이 다른 내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존재할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며 굉장히 절망했어요. 제가 유학을 마무리 할 그년도 수세기 전부터 구축되어온 서양 미술을 따라가기가 힘들었죠. 나는 누구여, 여기는 왜 왔으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계속 애도를 했어요. 어느 날과 같이 고민을 하며 침울하게 브리콜라주의를 가계를 무성하게 나타냈는데요. 건물을 짓는 시멘트 하고 못을 파는 큰 기계예요. 그 앞에 바비큐용 숯을 팔고 있는 기계요. 그냥 그냥 하나 샀어요. 그걸로 대학 시절 미성을 하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림을 그려보았어요.

**M** 그때 지금의 작가님과 배려야 될 수 없는 '숯'을 만나셨군요. 네, 유희동림은 조그마한 게 2년~3만원 하는 숯은 한 포대가 2000~3000원 하거든요. 집에 겨우 물칠을 하고 있는데 작가로서 그림은 그려야겠고요. 가난한 화가에게 최상의 재료였어요. 서양 미술이 '색의 세기'라면 동양 미술은 '색의 세기'예요. 글씨부터 산수화, 풍경화도 다 먹으로 그렸죠. 그 먹을 만드는 재료가 숯이예요. 숯을 딱딱하게 굳힌 다음 돌 위에 돌을 넣고 깊은 먹이 되죠. 먹, 그러니까 숯은 한국,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만 쓰이는 미술 재료예요. 그중 특히 한국에서는 숯이 문화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도 연관이 깊어요. 옛날엔 야기기가 태어난 데다 숯을 매달아 걸었어요. 이듬해 태어난 그 시아사이에 고추를 까유기도 했어요. 탄성, 강성을 담글 때도 독 안 에 숯을 넣어놓았어요. 숯이 나쁜 박테리아를 죽이거든요. 그리고 때때로 밥을 할 때 도 숯을 넣었어요. 한옥을 지을 때는 땅을 2m 정도 파고요. 1m에서 1.5m 이상 숯으로 채운 다음 소금을 뿌렸어요. 그 위에 흙을 얹고 탄탄히 다진 다음 한옥을 짓는 거죠. 그렇게 하면 집이 발라가 생기지 않아요. 숯의 밸런스도 맞춰주고요. 숯의 미세 입자 물리면서 공기도 쾌적해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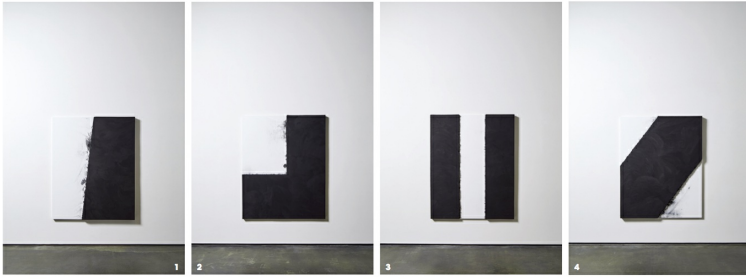
**M** 숯이 어떻게나 다양한 방법으로 쓰였는지 놀랐어요. 네, '숯'은 하나의 물성을 지닌 사물이 아닌 재가 살아온 문명의 문화예요. 사실 이면에서 한국 작가로서 미 미지를 끌어내는 게 많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작가로서 자란 제 성장 배경의 연결고리가 있는 '숯'을 재료로 선택했어요. 또 늘 자연 속에서 자란 제 성장 배경 때문인지 저의 작가적인 강령을 바탕으로 카오스 상태의 자연을 하나의 예술로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숯을 사용해 어디서부터 보고 자란 고향 정도의 감나무를



1 숯의 재료로 세련된 현대의 작업실. 2 이는 자연에서 다른 빛을 내는 이때 작업의 정열이 유무 두 부, 총 1000여 개, 숯도, 대구, 뉴욕, 한국을 돌아다니며 정열 활동을 하는 숯의 작가. 마에. 4 작품의 중요한 재료인 숯, 사진 속 숯은 가이 산에서 1인에서 만들어낸 것이다.







1.2.1.4 '이수 뒤 푸'의 실제 형태를 나타낸 숲의 한 구역의 단면도. 단면도는 작품 '랜드스케이프'의 8월 15일 이후에 이어 다시 동구 봉선동의 숲 단면도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숲은 조지아를 길게 이어붙인 삼나무 식재, 7월 1990년대 중반 숲으로 구성된 그랑 장드 뒤 숲과 그들 앞에 선 아베 당파 리프 트로프.

그렇고요, 랜드스케이프(landscape), '숲의 근황'이라는 뜻의 '이수 뒤 푸(Ssu du Feu)'라는 작품들이 있어요.

M 캔버스 위에 숲이 붙어 있는 작품이지요? 네, 숲을 흰으로 색만 단면이 나오잖아요. 그걸 캔버스 위에 붙이고요. 아라비안고무라고 자연 상태의 나무에서 나오는 액인데 이게 잘 붙은 역할을 해요. 이걸 붙여 개서 숲 위에 올리면 시프로 같이요, 울퉁불퉁한 숲들이 갈라면서 굴곡들 사이가 매워지고요, 그 위에 다시 아주 얇은 레이어로 표면을 얇아 광을 낸 작품이 '이수 뒤 푸'라는 작품이에요.

M 숲거지 있던 나뭇결들이 작가님에 의해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되었네요. 그런데 보통 숲이라고 하면 감기 마린인데 이 작품에서는 보는 건도에 따라 다른 빛을 내요. 나무는 광택이 안 나는데 숲은 광택이 나오. 숲이 엄청나게 강한 광택을 받으면 다이아몬드가 된다고 해요. 그냥 불은 굵은 게 아니라 이글루와 같이 촘촘으로 만든 큰 가마에서 1000°C 이상의 고온 상태로 도자를 굽듯이 굽는 거예요. 5일 동안 불을 데고 다시 15일간 산에서 순수한 탄소만 남게 하죠. 이렇게 만든 '숲'은 한 가지의 검은 색이 모든 색을 포함해 100가지의 색이 들어가 있어요. '빛도 어둡죠. 그래서 많은 분이 제 작품을 검은색이 아닌 빛으로 그린 그림이라고 표현해요. 상징적으로는 '숲'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현실성과 일상성을 모두 벗어난 순수성을 지닌 물건이죠. 죽은 물건이 아니고 불을 붙이면 다시 불이 붙는. 예 나지가 있는 물건이에요. 결국 세계 '숲'은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생명의 역사를 의미해요.

M 작가님 말씀대로 1차원적인 검은색이 아니라 보다 보면 불룩출처처럼 빠져들어요. 그때 하신 프랑스에서의 작업이 한국에는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나요? '숲'을 만나게 되었지만 여전히 화실이 없었어요. 프랑스 국경상에 편지를 써서 2차 세계대전 시기 탱크를 만들던 공장을 빌렸어요. 그곳에서 1992년부터 2002년까지 10년간 그림을





1.30이후 작가가 즐겨 작업하던 그림 정도의 양, 2000년 정도에 이르러 100여 점이 넘는 그림을 그렸다. 모든 공간에서 작업이 계속 되다가는 일이었다. 쉬을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2. 2016년 3월 미국에서 열린 미술관 전시. 3. 2016년 3월 미국에서 열린 미술관 전시. 4. 2016년 3월 미국에서 열린 미술관 전시. 5. 2016년 3월 미국에서 열린 미술관 전시.

그랬어요. 얼마나 열심히 그랬는지, 사람들이 저보고 미쳤다고 했어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작가의 삶이 곧 작업이었어요. 참 열심히 살았어요. 파리의 화랑 아가자기에서 조각이나 전시를 할 기회도 많았죠. 그러다가 2000년도 어느 날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매년 작가 한 명을 뽑아 (올해의 작가상을) 하는데 제가 선정이 됐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선정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큐레이터 18명이 투표를 해서 표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뽑히는데 제가 받았구나 봐요. 그때 처음 서울에서 개인전을 하게 되었고, 그 이후 그림이 팔리기 시작했어요. 해외에서도 조금씩 알려졌고요. 주 고객층인 미국 맨해튼의 상류층은 자연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는데 제가 숲으로 작업을 한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거 같아요.



M 이때부터 작가가 숲의 화가로 불리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정부에서 영구 임대해준 아틀리에에도 있고요. 프랑스는 외국 작가에게 문화적인 혜택을 많이 주는 나라예요. 정부와 기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까지 팔백선에 나서는 등 현대 미술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요. 문화는 산업사회의 광고판이에요. 한 나라의 경제 척도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문화예요. 소문지 시대부터 이를 잘 알고 있었던 프랑수아즈 아를로가 벤치마킹한 미국은 아이젠하워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인 1961년 베니스 비엔날레에 미 후원위원 18명을 데리고 갔어요. 엄청난 문화 정책을 하면서 엄청난 작가들을 자국으로 데려간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미국이 세계 미술의 중심이 된 거예요.

M 최근에는 어떤 작업을 하세요? 지금까지의 작품이 숲이라는 물성을 차용해서 작가적인 감성을 입힌 거대한 모듬은 숲을 역처럼 곁에서 손으로 그리고 있어요. 그

순 아르바를 버리고 다시 숲으로 그리고를 반복하죠. 인간의 행위를 캔버스에 기록하고 보존하려 해요. 보통 사람에서는 물건을 오래 보존할 때는 '발판'을 하는데, 그 발판의 현대적인 방식이 아르바를 미술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오일 페인팅은 캔버스 밑으로 휘어나오거든요. 동양화의 먹은 종이 안으로 흡수돼요. 표면에 쌓이지 않죠. 지금 제가 하는 방식이 바로 동양화처럼 숲을 작품 안으로 집어넣는 방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M 감이와 조용한 물결이 느껴져요. 내년에는 엄청난 전시를 앞두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미국을 대표하는 미술관으로 미국 뉴욕에 '구겐하임 박물관'이 있다는 파리에 '미그 재단 미술관'이 있어요. 이곳에는 스위스 대표 작가인 알베르트 지코에티의 작품이 100여 점, 스페인의 대표 작가인 호안 미로의 작품이 2000여 점 있었어요. 이곳에서 내년 3월 17일부터 개인전을 열어요. 당게의 방에 설치 작품과 회화 등을 두루 채울 예정이에요. 이게 제일 큰 전시고, 비슷한 시기인 3월 15일에는 파리 페르셀 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열어요. 또 홍콩 바젤 아트페어에도 참여할 예정이구요. 내년 3월엔 전시가 3개나 들어요(웃음).

M 맞아요. 정말입니다. 그리고 인고의 시간을 거쳐 지금의 전성기를 맞으신 작가님을 늘 응원합니다. 파리에서의 첫 10년 동안엔 그림 한 점 팔리지 않았어요. 새벽이든 밤이든 화실에서 그림만 그렸어요. 잠깐 집에 들을 때마다 팔이아기가 집에 자주 놀러 오려고 할 정도였죠. 앞으로는 늘 이렇게 우직하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든 '숲'인데요. 오늘 대화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